



HOME > 오피니언 > 투데이기고

포스트 코로나, 농촌관광으로 활력을 불어 넣는다

충청투데이 | 승인 2021.08.17 | 19면

김남표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농촌관광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도시화 및 저출산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른 대응과 수요창출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사람들의 걸음이 멈추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은 꿈속의 일이 되어 버렸다. 가족단위로 국내관광이 늘어나고 있고 신혼여행지가 제주도로 바뀌는 레트로, 즉 복고풍이 불고 있다.



이로 인해 관광형태가 코로나 이전의 대면단체관광에서 벗어나 가족단위 소규모 관광 또는 개별관광형태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관광객들로 인파가 붐비는 곳보다는 아늑하고 한적한 농촌관광지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농촌관광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 및 특산물을 활용하여 농림전시관, 자연학습관, 지역특산물 판매소, 휴양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거나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형태의 관광활동으로써 농촌관광은 6차산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6차산업은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여기에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융복합화한 산업을 의미한다. $1+2+3=6$ 이라는 의미에서 6차산업이란 명칭이 생겼다. 농업이라는 1차산업과 이를통해 얻어지는 특산물을 이용한 재화의 생산 (2차산업) 그리고 관광 프로그램과 같은 서비스 창출(3차산업)을 통해 6차산업이라는 복합산업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청양군은 지난해 관광객 500만 시대를 선언하고 종합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천장호 관광지 활성화 사업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농촌 융복합 활력거점으로 체험활동 및 특산물판매장을 갖추어 일자리 창출과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발전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는 청양군의 농촌관광사업전략 및 방향에 부응하여 긴밀한 협업을 통해 농촌관광객 유치지원 및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청양군은 칠갑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 등 관광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천장호 출렁다리는 총길이 207m, 폭 1.5M로써 고추모형의 주탑을 통과한후 천장호수를 가로지르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수변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명소이며 국내최초로 출렁다리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연접해 있는 알프스 마을은 칠갑산 얼음축제, 조롱박축제, 짚트랙 체험 등으로 연간 약 30만명이 방문하는 농촌관광명소로 명성을 얻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은 단절되어 있는 천장호 수변 산책로를 알프스 마을로 연결하여 알프스 마을로 유입되도록 하므로써 알프스마을에서 제공하는 각종 여행상품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청양군의 대표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야심찬 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사업은 국비 16억, 군비 9억의 총 25억 예산으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주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과 더불어 구름다리, 연계탐방로, 하늘쉼터를 설치하여 농어촌관광객이 자연의 볼거리와 힐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인근 주변 관광지인 칠갑산 도립공원, 장승축제, 장곡사, 청양고추구기자 축제등과 연계하면 농촌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다.

이러한 농촌관광인프라사업을 통해 도시민들이 청양지역을 찾고 싶고 다시 가보고 싶은 농촌관광지역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도시민과 농업인들이 상생하고 조화를 이루고 삶의 가치와 행복수준이 높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